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장애인시설 퇴소 때 보호자 동의는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퇴소·전원 계획 세부지침 권고
의사능력 정도 고려 정보 제공·방문 기회 등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측에 △퇴소 및 타 시설로의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충

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사전(예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거주인 퇴소·전원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소재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난 1월1일 이후 15명의 거주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

규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시설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임의로 퇴소 및 전원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시설 측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시설 및

병원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함평보건소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호응

6월부터 12주간 사업 마무리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는 지난 6월부터 12주 동안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선정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찾아가는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질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사전·사후 검진을 통해 대상자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침 시술, 한약제제 처방 등 통합적 한의중재 및 장애관련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도움을 줬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 기자

한남대 시각장애 졸업생 공무원 합격 ‘눈길’

제학 중 도움받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합격수기 보내

대전 한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시각장애인 구제희씨(29)가 장애를 극복하고 대전시 일방행정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
이 사연은 구씨가 자신의 합격수기를 한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한 통의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알려졌다.
구씨는 올해 졸업까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한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다. 칠판을 볼 수 없기에 노트 필기를 대신해 줄 도우미 학생을 소개받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받기도 했다.
구씨는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 제 합격 수기가 특히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장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후배들이 자신의 수기를 통해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행정직 공무원에 합격하기까지 수험기간과 실패 극복, 스트레스 해소법, 면접



한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구제희씨

준비까지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줬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들었다. 취업에 먼저 성공한 지인들이 기죽지 않도록 항상 응원하고 북돋아 줬다”며 “장애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벽은 스스로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양 대전면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사랑의 전등 교체

담양군 대전면(면장 정경옥)에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역에 밝은 빛을 선물했다.
대전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5일과 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 38가구에 방문해 ‘사랑의 전등(LED)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노후주택에서 어두운 전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이번 전등 교체로 밝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상가구의 한 어르신은 “전등교체로 밝아진 환경 덕분에 마음까지 밝아진 기분이다. 정말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정현 기동대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항상 밝은 환경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